

따뜻한 글의 힘... '언어의 온도' 100만부 돌파

지난해 판매 1위...아시아 수출
언어의 소중함·일상 에세이로 담아
입소문·작가 발표 홍보 인기 비결
저자 이기주 작가, 여름 신간 발표



이기주 작가

“어제 노트북을 켜고 ‘사람’을 입력하려다 실수로 ‘살’을 쳤다. 그리고 보니 ‘사람’에서 슬며시 받침을 바꾸면 ‘살’이 되고 ‘사람’에서 은밀하게 모음을 빼면 ‘살’이 된다. 세 단어가 닮아서일까. 사랑에 얽매이지 않고 살아가는 사람도, 사랑이 끼여들지 않는 삶도 없는 듯하다.”(본문 중에서)

이기주 작가의 ‘언어의 온도’(말글터·사진)가 밀리언셀러에 올랐다. 출판사 말글터는 ‘언어의 온도’ 판매 부수가 100만부를 돌파했다고 최근 밝혔다. 지난 2016년 8월 발간된 지 1년 8개월 만의 성과다.

책은 저자가 일상에서 깨달은 단상과 경험을 소소하면서도 정갈하게 풀어낸 에세이다. 또한 말과 글의 어원과 유래, 언어가 지닌 소중함과 절실함도 살뜰히 담고 있다.

특히 책은 ‘역주행’ 도서의 대표 아이콘으로 자리매김했다. 데서 눈길을 끈다. 교보문고, 예스24, 인터파크도서 등이 2017년도 도서 판매량을 분석한 순위에서 가장 많이 팔린 책으로 집계됐다. 출판 에이전시인 KCC와 KL매지니먼트를 통

해 대만과 베트남 등 아시아 전역에 판권이 수출됐다.

출간 당시에는 크게 독자들의 관심을 끌지 못했지만 뒤늦게 입소문을 타고 ‘역주행’한 대표 케이스가 됐다.

출간 이후 저자는 기존 출판 홍보와는 다른 방식으로 접근해 주목을 받았다. 작가가 직접 전국의 주요 서점을 직접 돌며 책을 알린 것으로 화제가 됐다. 발표를 팔아가며 책의 진가를 알린 것이 주요했던 것으로 보인다.

책에서 저자가 주장하는 핵심은 모든 말과 글에는 나름의 온도가 있다는 것이다. 달리 말하면 뜨거운 것과 차가운 정도가 저마다 다르다는 얘기다. 저자는 온기 있는 언어는 슬픔을 감싸 안아준다고 강조한다. 세상살이에 지쳐 있을 때 어떤 이는 친구와 이야기를 주고받으며 고민을 털어내기도 하고, 어떤 이는 책을 읽으며 문장이 주는 위안을 받기도 한다.

“글은 여백 위에만 남겨지는 게 아니다. 머리와

가슴에도 새겨진다. 마음 깊숙이 꽃힌 글귀는 지지 않는 꽃이다. 우린 그 꽃을 바라보며 위안을 얻는다. 때론 단출한 문장 한 줄이 상처를 보듬고 삶의 허기를 달래기도 한다.”

그러나 저자는 용광로처럼 뜨거운 언어에는 감정이 잔뜩 실리기 마련이라고 설명한다. 무심결에 내뱉은 말 한마디 때문에 사람과의 사이가 소원해진다. 그뿐 아니라 한두 줄 때문에 누군가 마음을 다쳤다면 ‘글 온도’가 너무 차가워서일 수도 있다고 진단한다.

저자는 ‘눈노를 대처하는 방법’에 대해서도 ‘이누이트’(에스키모)의 사례를 들며 방안을 제시한다. “그들은 화가 치밀어 오르면 하던 일을 멈추고 무작정 걷는다고 한다. 언제까지? 분노의 감정이 스스로 가라앉을 때까지. 그리고 충분히 멀리 왔다면 그 자리에 긴 막대기 하나를 꽂아두고 온다.”

언론인 출신의 저자는 쓸모를 다해 버려졌거나 사라져 가는 것에 대해 주로 쓴다고 한다. ‘월간중독자’를 자처하며 서점을 배회하는 것도 좋아한다.

한편 올 여름 ‘문학동네’ 출판그룹의 임프린트 ‘달 출판사’를 통해 신간 에세이를 선보일 예정이다. 지난해 11월에는 독자들의 성원에 보답하기 위해 ‘사랑의열매’ 사회복지공동모금회를 방명해 포함 지원 금액으로 1억 원을 기부했다. 지금까지 ‘여전히 글쓰기가 두려운 당신에게’, ‘언플(言品)’ 등의 책을 펴냈다.

박성천기자 skypark@kwangju.co.kr

공원에서 봄을 듣다



21일 광장음악회
광주 남구 물빛공원

제83회 광장음악회 ‘봄을 기억하다’가 오는 21일 오후 7시30분 광주시 남구 노대동 물빛근린공원에서 열린다.

이번 공연은 관객과 출연자가 함께 부르는 김동진의 ‘봄이 오면’으로 문을 연다.

이어 슈만의 ‘봄이다’, 로에베의 뮤지컬 ‘마이 페어 레이디’ 중 ‘밤새도록 춤출 수 있다면’, 웨버의 오페라 ‘오페라 유령’ 중 ‘All I Ask of You’를 준비했다.

김동환의 ‘그리운 마음’, 백설희의 ‘봄날은 간다’, 임공수의 ‘강 건너 봄이 오듯’, 크루티스의 ‘나를 잊지 말아요’를 무대에 올린다.

또 ‘부에노스 아이레스 사계’ 중 ‘봄’ 연주와 김효근의 ‘첫사랑’, 가스탈론의 ‘금단의 노래’, 정예련의 ‘강변아리랑’, 기 다르들로의 ‘그대를 위하여’, 베르디의 오페라 ‘라 트라비아타’ 가운데 ‘축배의 노래’를 들려준다.

마지막 무대는 아리아 만의 ‘천개의 바람이 되어’를 함께 부르며 마무리한다.

이번 공연에는 바리톤 정찬경, 바리톤 김치영, 테너 김백호, 소프라노 김선희, 신은선, 피아노 이윤택, 바이올린 박승원, 첼로 박효은, 드럼 김민호가 출연한다.

전은재기자 ej6621@kwangju.co.kr

한강·임흥순, 美 ‘카네기 인터내셔널’ 간다

한국 근현대사 다룬 전시 협업
임 감독 광주비엔날레 3회 참여



임흥순(왼쪽) 작가와 소설가 한강.

광주 출신으로 맨 부커상 수상작가인 소설가 한강과 광주비엔날레에 3차례 참여했던 영화감독 겸 미술가 임흥순 작가가 미국의 유서깊은 비엔날레인 카네기 인터내셔널에 참여한다.

11일(현지시간) 행사 홈페이지를 통해 발표된 제57회 전시 참가 작가 명단에는 한강과 임흥순이 함께 이름을 올렸다. 오는 10월 13일 펜실베이니아주 피츠버그 오클랜드 카네기미술관에서 개막하는 카네기 인터내셔널은 1896년부터 진행되고 있는 전시다.

이번 참가는 주최측에서 두 사람의 매칭을 제안해 이루어졌으며 지난해부터 의견을 교류해온 두 작가는 한국 근현대사를 다룬 작업을 발표할 것으로 알려졌다.

임 작가는 국내 작가로는 처음으로 2015 베니스 비엔날레에서 은사자상을 받았다. 수상작은 아시아 여성의 노동 문제를 소재로 국내와 캄보디아, 베트남 등에서 촬영한 다큐 ‘위로공간’.

특히 임 작가는 광주비엔날레와 인연이 깊다. 2002년 제4회 광주비엔날레 ‘멈춤’을 시작으로

2004년 ‘먼지 한톨 물 한방울’, 2010년 ‘만인보’에 참여한 임 작가는 “광주비엔날레 세 차례의 참여 경험이 국제적 작가로 성장하는 밑거름이 됐다”고 밝혔다.

지난 2016년 ‘채식주의자’로 맨부커상을 받았던 한강 작가 역시 ‘제8기후대(예술은 무엇을 하는가)’를 주제로 열린 2016년광주비엔날레 행사에 참여했다. 한 작가는 ‘크고 작은 모두의 힘으로’를 주제로 열린 광주비엔날레 포럼에서 발제를 맡았다.

한편 한 작가는 최근 발표된 2018 맨부커상 6명의 최종 후보에 다시 한번 올라 화제가 되고 있다. 후보작은 2016년 발표한 소설 ‘흰’으로 세상의 흰 것들에 대해 쓴 65편의 짧은 글을 묶은 작품이다.

김미은기자 mekim@kwangju.co.kr

세월호 에세이집 ‘눈먼 자들의 국가’ 19일까지 전자책 무료 배포

인터넷 서점 알라딘과 출판사 문학동네는 세월호 참사 4주기를 맞아 추모 에세이집 ‘눈먼 자들의 국가’ 전자책(eBook)을 무료로 배포한다고 밝혔다.

‘눈먼 자들의 국가’는 김애란, 김병수, 김연수, 박민규, 진은영, 황정은, 배명훈, 황준영, 김홍중, 전규찬, 김서영, 홍철기 등 12명의 작가가 세월호 희생자를 추모하고자 펴낸 에세이다.

책은 세월호의 참사를 잊지 말자는 뜻에서 열두분의 필자와 문학동네가 뜻을 모아 발간했다. 문인들이 바라보는 세월호 참사의 슬픔과 분노, 그리고 사회학자들이 전하는 세월호의 진실과 그날의 사건이 담겨 있다.

저자들은 어떤 경우에도 진실은 결코 포기될 수 없으며 정당한 슬픔은 합당한 이유 없이 눈물을 그치는 법이 없다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 글을 썼다.

전자책은 19일까지 알라딘 홈페이지에서 무료로 내려받을 수 있다. 이후에는 180일간 자유롭게 읽을 수 있다.

알라딘은 “좀 더 많은 사람이 세월호를 기억하길 바라는 마음에서 같은 생각을 하는 출판사와 함께 무료 전자책을 배포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박성천기자 skypark@kwangju.co.kr

‘인상주의 명작들’ 정금희 교수 강연

20일 광주시립미술관



제8대학 조형예술학 학사 및 석사, 1995년 파리 제1대학에서 미술학 박사학위를 받았다. 유럽문화예술학회 회장으로 ‘프리다 칼로와 나혜석, 그리고 까미유 끌로델’, ‘20세기 서양조각의 거장들’ 등을 펴냈다.

한편 미술관 대학은 ‘아슈파, 표현주의, 추상미술’ (5월15일·김승환 조선대교수), ‘추상표현주의, 앵포르멜’ (6월19일·박영택 경기대 교수) 등의 강의가 예정돼 있다. 무료 참여. 문의 062-613-7153.

김미은기자 mekim@kwangju.co.kr

광주시립미술관이 진행하는 ‘2018년 미술관 아카데미’ 두 번째 주자로 정금희(사진) 전남대 미술학과 교수가 나선다. 20일 오후 3시 광주시립미술관 강당.

‘인상주의와 후기인상주의’를 주제로 강의하는 정교수는 자연을 사실 그대로 묘사한 르네상스 전통에서 벗어나 작가가 독창적인 개성으로 작업에 임해 모더니즘 미술의 시작을 알린 인상주의에 대한 이야기를 들려줄 예정이다. 강의에서는 마네, 모네, 르누아르, 고흐, 세잔 등 인상주의 명작과 예술가들의 삶을 살펴본다.

정교수는 전남대 미술교육과를 졸업하고 파리

미디어아트 레지던스 입주 6개팀 선정

‘창의 랩 1기’ 2개팀 선정도

2018 미디어아트 레지던스 7기 입주작가 선정이 마무리되고 총 6개실에 5명의 개인과 1개팀이 입주했다.

입주작가는 지난 3월 공모를 통해 선정돼 오는 12월까지 창작공간 및 사무기구, 창작지원금, 레지던스 프로그램을 지원받게 된다.

광주문화재단은 빛고을아트스페이스에 위치한 미디어아트 레지던스 스튜디오에 입주할 작가를 선정해 지난 11일 입주를 마쳤다고 밝혔다. 또한 7기 입주작가 7명과 미디어아트 창의 랩 1기 프로젝트 2개팀의 7명이 만나는 자리를 마련해 올해 활동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과 일정 등을 논의했다.

이들은 오는 5월 작가 역량강화워크숍과 시민 미디어아트 아카데미, 6~7월 작가별 릴레이 데모 등 일 년 내내 다양한 활동이 예정돼 있다. 특히 올해는 유네스코 미디어아트 창의도시 간 국제 교류 프로그램이 추가돼 입주작가의 글로벌 역량강화, 국제 네트워크 구축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교류도시는 일본 삿포로 또는 중국 창사 예정이다.

한편 올해 미디어아트 창의 랩 1기팀은 ‘덕령이와’ ‘LapiA’가 선정됐다. 문의 062-670-7493. 박성천기자 skypark@kwangju.co.kr

의했다.

이번 7기 입주작가는 김혜경, 문창환, 신창우, 최하람, 폴바주카, 팀 디아엘이다.

이들은 오는 5월 작가 역량강화워크숍과 시민 미디어아트 아카데미, 6~7월 작가별 릴레이 데모 등 일 년 내내 다양한 활동이 예정돼 있다. 특히 올해는 유네스코 미디어아트 창의도시 간 국제 교류 프로그램이 추가돼 입주작가의 글로벌 역량강화, 국제 네트워크 구축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교류도시는 일본 삿포로 또는 중국 창사 예정이다.

한편 올해 미디어아트 창의 랩 1기팀은 ‘덕령이와’ ‘LapiA’가 선정됐다. 문의 062-670-7493. 박성천기자 skypark@kwangju.co.kr

방수 부분설비(누수)

부위별 방수시스템!
분야별 방수 시스템!!
최적의 방수 시스템!!

“최선을 다하여 성실 시공합니다”

광주 062)676-7719
전남 061)375-7719

무료견적 시공상담

방수전문그룹 CHILMAN CMTECH
광주,전남 시공회사 (주)씨엠테크복합방수

걱정하지 마세요!!
“철만표방수는 거짓말을 하지 않습니다”
유사품, 모방품에 주의하세요!!
시공 및 제품 판매 / 셀프시공가능
“소비자가 인정했습니다”

슬라브 옥상스틸 방수 및 지붕공사

단열재가 부착된 스틸(강판) 패널

아파트, 주택, 원룸, 학교, 상가건물, 공공건물, 대형빌딩 등(슬라브옥상) 시공

갈라지고 물이 새는 옥상바닥. 겨울의 차가운 냉기! 여름의 뜨거운 열기! 방수와 단열 한번에 해결

옥탑이 없는 평슬라브 주택은 칼라강판지붕공사

▶방수와 단열 이중효과!
▶시공후 관리 보수 용이!
▶반영구적 최신공법의 특수방수!

▶옥상 사용 및 태양광 설치 전과 후 시공가능!
▶옥상 한번 시공으로 고민 끝!
▶냉·난방비 절감효과!

스틸방수 및 지붕공사 무료견적

디자인 등록 제 30-0934833호, 제 30-0949873호 특허청

TWIN STEEL 트윈스틸 (모던건설) 시공문의 H.010-9229-3530